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연구의 동향*

김정석** · Kwak Jeonran*** · 김미선**** · 박세경*****

Text Mini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Care for Disabled People

Kim, Cheong-Seok** · Kwak, Jeonran*** · Kim, Miseon**** · Park, Sekyung*****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how changes in social and policy perceptions and approaches to caring for the disabled are reflected in academic discourse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Methods]** The analysis targeted the 170 papers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registered between January 2005 and March 2022, that included the term “care for the disabled”. After examining the distribution of articles by period of publication and academic discipline, keyword frequency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re conducted using the Korean-languages titles and abstracts. To examine periodic trends, publication dates were divided into four periods, namely the late 2000s, early 2010s, late 2010s, and early 2020s. **[Results]** First, papers about caring for disabled people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and have been produced across various academic fields. Second, the keyword frequency and semantic network analyses show that terms relating to family care, such as ‘children’, ‘mother’, ‘parent’, and ‘family’, have high frequency and high centrality throughout the publication period. On the other hand, keywords relating to social care, such as ‘self-reliance’, ‘de-facility’, and ‘community integrated care’, occupy more peripheral positions. In the analysis by period, the frequency of family-based keywords was maintained while their centrality decreased somewhat, and both the frequency and centrality of ‘community’ gradually increased. Third, topic modeling for this research on caring for the disabled extracted four groups: Topic 1 is support for community-care services for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pic 2 is personal assistant services and care labor; Topic 3 is the burden on parents and families of caring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ocial support for them; and Topic 4 is the care experience and stress of mothers caring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number of articles in the social care Topics 1 and 2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ime, and family-based articles in Topics 3 and 4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research throughout. **[Conclusion]** In the context of caring for the disabled, the research paradigm that the family is the main agent of care while society plays a partial role has persisted. This suggests a necessity for academic discourse that promotes the socialization of care.

Key Words : Disabled people, Care, Socialization of care, Care by family, Text mining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1040).

** 제 1저자,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Sociology, Dongguk University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연구교수(kwakdesu@gmail.com)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Population and Society, Dongguk University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Doctoral candidate,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공동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출산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승연, 2019). 장애인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장애 인구의 비율이 49.9%에 달한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돌봄에 대한 니즈의 증폭과 맞물려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 온 돌봄을 공공화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전개되고 있다(송다영, 2014; 석재은, 2018). 구체적인 예로 노인을 위한 공적인 돌봄 체계로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제도화되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돌봄 체제 마련을 위해 2019년 커뮤니티케어에 기반한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되어, 탈시설화와 함께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이 되고 있다(김용득, 2018; 보건복지부, 2020).

이와 같은 ‘돌봄의 사회화’는 특수교육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되었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정되어 부모휴식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형제·자매 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김기룡, 강경숙, 이명희, 2016). 특수교육 내부에서도 특수학교 돌봄 교실, 학교 돌봄터 사업과 같이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양화, 김남순, 2013; 박재범, 2018).

한편 일각에서는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김민아 외, 2020).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공 돌봄의 정지로 인해 ‘돌봄의 재가족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3월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중단되면서 돌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어머니가 발달장애 자녀를 죽인 사건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유사한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강혜민, 2022.03.08.).

한편, 장애인 돌봄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도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학술적 논의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장애인 돌봄 제공자로 간주되어 온 가족과 돌봄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

협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가운데(김교연, 2009; 오승민, 2013; 이명희, 2015; 최복천, 백은령, 임수경, 2013; 표윤희, 홍정숙, 2018), 장애인 형제자매의 돌봄에 대한 연구(이정은, 김경미, 2021; 조영실, 양소남, 2018)도 전개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이 학령기 이전이나 학령기 장애자녀의 가족 돌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면(오승민, 2013; 최복천, 백은령, 임수경, 2013), 최근에는 성인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부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심석순, 2013; 이복실, 2015).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한 연구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가족 중심의 돌봄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돌봄의 사회적 지원을 강조한다(류연규, 2012). 최근 탈시설화 정책과 맞물려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 체계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용득, 2018; 홍선미, 전주희, 하경희, 2022). 특수교육 내부에서도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기룡, 강경숙, 이명희, 2016; 유영준 외, 2011; 최복천, 2016). 일각에서는 돌봄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해 온 것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안숙영, 2018; 임소연, 이진숙, 2016; 조상은, 오욱찬, 2021). 특히, 임소연, 이진숙(2016)은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직이 여성의 일자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돌봄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돌봄은 중요한 사회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학술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술적 담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윤미, 강기정(2019)은 커뮤니티케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커뮤니티케어라는 특정 돌봄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돌봄 연구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돌봄 연구에 대한 학술적 담론 분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간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텍스트마이닝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해영(2019)은 SNS와 온라인 뉴스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동향분석을 통해 장애인고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경 외(2021)는 어휘 중재 연구를 중심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어휘 중재 관련 연구의 주요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학술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시기별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변인 특성 등에 관한 결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한다(홍성연, 최재원, 2017). 대량의 자료를 개인 연구자가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시대적 흐름 전반을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채영란, 2021). 빅데이터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은 방대한 연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끼리의 연관 관계를 도출하여 표면화되지 않은 잠재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핵심개념의 변화 추이와 관련 핵심개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하여 학술적 담론이 생성된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권대석, 2012).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돌봄에 관한 사회적·정책적 인식과 접근의 변화가 학술 담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돌봄 연구를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돌봄 연구는 시기와 학문 영역에 따라 어떻게 생산되어 왔는가?

둘째, 장애인 돌봄 연구의 시기별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며 키워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셋째, 장애인 돌봄 연구의 주요 토픽은 무엇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장애인의 돌봄에 관한 국내 논문이다. 논문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이하, KCI)에 등록된 KCI등재지, KCI등재후보지 및 기타학술지 논문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와 ‘돌봄’ 혹은 ‘장애’와 ‘케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동시에 포함된 첫 국내 연구는 2005년 김용득의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이다. 첫 장애인 돌봄에 관한 논문이 생산된 2005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2년 3월까지가 논문수집 기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2005년~2009년), 2010년대 초반(2010년~2014년), 2010년대 후반(2015년~2019년), 2020년~2022년 3월까지로 네 시기로 구분하여 장애인 돌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네 시기로 구분한 이유는 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주요

제도들이 장애인 돌봄 연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특정 제도에 따른 장애인 돌봄 연구의 동향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10년대 초반 ‘장애인활동지원법’ 과 ‘발달장애인법’ 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주요 제도의 등장 전후의 동향을 분석하기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을 나누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와 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에서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를 분석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논문의 서지자료(bibliographic data)는 NetMiner프로그램의 Biblio Data Collector를 통해 수집되었다. 서지자료는 논문의 저자명, 제목, 키워드, 국문 및 영문 초록, 발간시기, 학술지명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NetMiner는 SPSS와 같은 GUI(graphical user interface)방식의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프로그래밍 언어체계를 습득하여, 자료를 입력 및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 특히 NetMiner의 Biblio Data Collector는 논문 서지자료의 수집, 입력 및 처리 절차가 모두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입력하거나, 처리할 필요 없이 곧바로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자료가 구축된다. NetMiner의 Biblio Data Collector는 Springer 및 KCI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있어, 본 연구에서는 손쉽게 KCI에 등록된 논문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일차적으로 논문의 제목 또는 키워드에 ‘장애’와 ‘돌봄’ 혹은 ‘장애’와 ‘케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논문을 검색하여, 203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논문 중에서 연구자가 직접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장애인 돌봄과 무관한 33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 170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33편의 논문을 제외한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장애란 단어가 ‘obstacle’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주로 ‘~장애요인’, ‘~장애원인’ 등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신생아중환자실 캥거루 케어 전국 실태조사: 간호행위, 장애요인, 간호사의 지식과 신념’라는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장애란 단어가 ‘disorder’로 쓰인 경우이다. ‘섭식장애’, ‘연하장애’ 등으로 장애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기반의 연하장애의 평가와 관리’와 같은 논문이 제외되었다. 단, 정신장애를 뜻하는 ‘mental disorder’는 본 연구주제인 장애인 돌봄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의 분석 언어는 한글이며, 분석 대상은 한글로 작성된 제목과 초록이다. 현재까지 텍스트 분석은 한 가지 언어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영문과 한글을 언어를 혼합하여 분석할 수는 없다. 또한, 논문 서지자료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연구자 간 인용네트워크 분석, 연구자 소속 분석 등 수집된 논문서지 자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방대한 연구가 담고 있는 공통된 주제와 잠재된 의미를 파악하

는 데 있으므로, 제목과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텍스트 자료는 NetMiner 프로그램을 통해 전처리(preprocess)과정을 거쳤다. 먼저, 명사 형태소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형태소는 다음 <Table 1>과 같은 전 처리 과정을 거쳤다. 검색 키워드로 사용했던 ‘장애’, ‘장애인’, ‘돌봄’ 단어는 제외하였으며, ‘자폐증’, ‘자폐스펙트럼’, ‘자폐 장애’ 단어는 ‘자폐성장애’로 명명하는 등 동일한 대상을 칭하는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와 무관한 단어, 특히 연구방법과 관련된 단어를 제외하였다. 또 사용 횟수가 매우 적고, 의미 없는 한 글자 단어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명을 제외하였다. 전처리 결과, 최종 1306개의 단어가 분석 키워드로 선정되었다.

<Table 1> Main Examples of Preprocessing

Preprocessing contents	Examples
Excluding Frequently Repeated Key terms	장애, 장애인, 돌봄
Treating synonyms as one word	자폐성장애, 자폐증, 자폐스펙트럼, 자폐 장애 → 자폐성장애 활동지원, 활동보조 → 활동지원 여성, 여자 → 여성; 남성, 남자 → 남성 등
Excluding term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topic	회귀분석, 결론, 고려, 경향, 근거이론, 기초, 변인, 베이지안 등
Excluding one meaningless character	관, 몸, 범, 삶, 씬, 일, 질, 집을 제외한 한 글자 삭제
Deletion of place names	한국, 일본, 대구, 경기, 경북, 경인, 광주, 대전 등

2. 분석 방법 및 절차

분석 역시 NetMiner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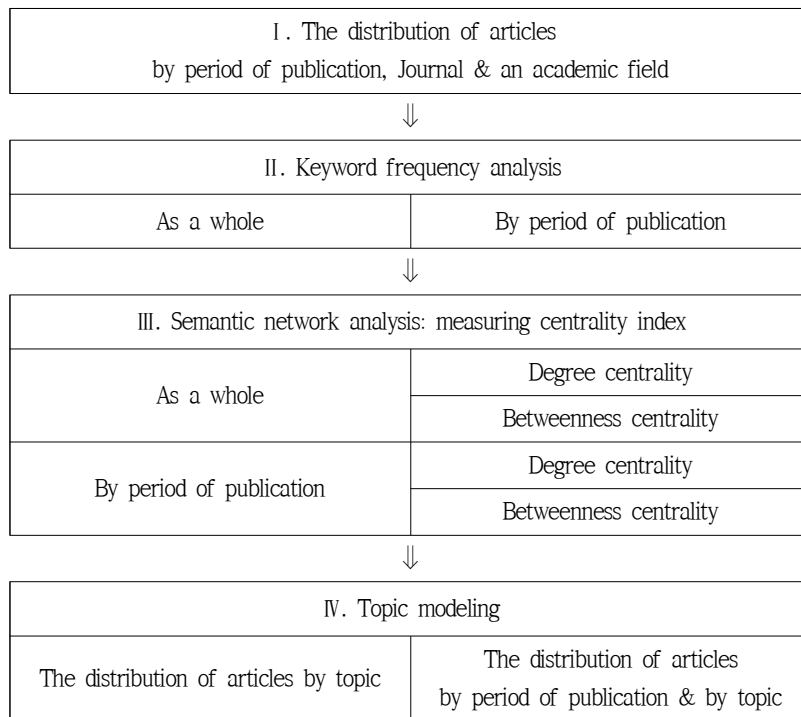
첫째, 발간 시기에 따른 논문의 양적 변화 및 주요 발간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발간 시기, 학술지 및 학문영역별 논문 편수 또는 분포를 확인하였다.

둘째, 장애인 돌봄 연구의 핵심 키워드 및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추출된 1306개의 키워드의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그리고 발간 시기별로 텍스트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셋째, 텍스트의 의미구조상 중심적 역할을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키워드가 변해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과

그에 따른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중심성 측정지표로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및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사용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해당 키워드가 얼마나 많은 키워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측정하며, 매개 중심성은 해당 키워드가 한 키워드와 다른 키워드를 연결하는 데에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를 측정한다(이수상, 2012: 257, 261). 중심성 지표 측정 역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그리고 발간 시기별로 텍스트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전 단계의 키워드 빈도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이 텍스트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고, 키워드끼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토픽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텍스트 자료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조합을 확률적으로 추론함으로써 텍스트에 내재된 주제를 찾고, 효율적으로 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Steyvers and Griffiths, 2007). 본 연구는 블레이, 응, 조던(Blei, Ng and Jordan, 2003)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을 사용하였다. 토픽별 상위 키워드를 통해 주제를 도출하였고, 토픽별 논문의 비율을 파악하였다. 또한, 시기에 따른 토픽별 논문 편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시기별 세부 연구주제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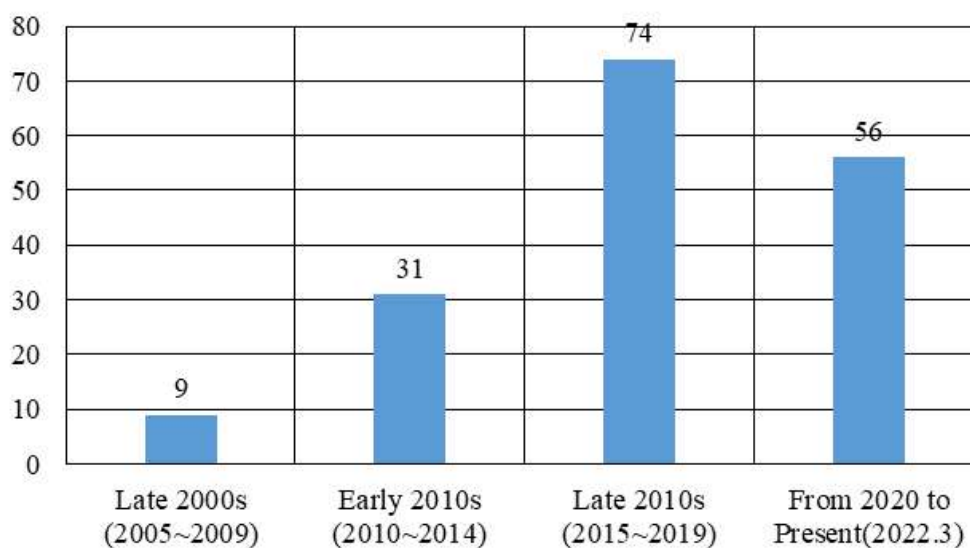


<Figure 1> Analysis Procedure

Ⅲ. 분석 결과 및 해석

1. 장애인 돌봄 연구의 시기 및 학문영역별 분포

장애인 돌봄에 관한 국내 연구는 2005년 연구를 시작으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Figure 2> 참조). 2000년대 후반에 9편에 불과했던 장애인 돌봄 관련 연구가 2010년 후반에는 74편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56편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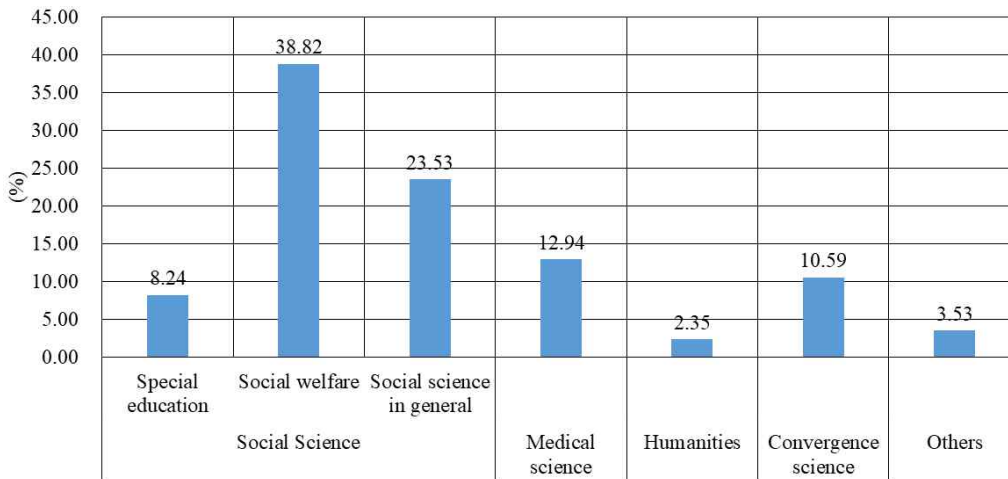


<Figure 2> The Number of Articles by By period of publication

논문의 학술지별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장애인 돌봄을 주제로 한 170편의 논문은 83개의 학술지를 통해 발간되었다. 이 중 ‘한국장애인복지학’이 22편(12.94%), ‘인문사회 21’이 12편(7.06), ‘재활복지’와 ‘한국가족복지학’이 각 7편(4.12%), ‘한국사회복지학’이 6편(3.53%)로 상위 5개 학술지를 통해 총 54편, 31.77%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그 외 78개의 학술지를 통해 116편(68.23%)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Table 2> Distribution of Articles by Journal

Rank	Journal Name	Freq.	%
1	한국장애인복지학	22	12.94
2	인문사회 21	12	7.06
3	재활복지	7	4.12
	한국가족복지학	7	4.12
5	한국사회복지학	6	3.53
6	사회복지연구	5	2.94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	2.94
8	비판사회정책	4	2.35
9	노인복지연구	3	1.76
	디지털융복합연구	3	1.76
	발달장애연구	3	1.76
	보건과 복지	3	1.76
	사회과학연구	3	1.76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	1.76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3	1.76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3	1.76
17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	1.18
	문화기술의 융합	2	1.18
	미래사회복지연구	2	1.18
	사회복지정책과실천	2	1.18
	산업융합연구	2	1.18
	여성연구	2	1.18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	1.18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	1.18
	지적장애연구	2	1.18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2	1.18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2	1.18
28	기타	56	32.94
Total		170	100.00



<Figure 3> The Proportion of Articles by an academic field (N=170)

학문영역별로 장애인 돌봄에 관한 논문의 발간 분포를 살펴보면(<Figure 3> 참조), 사회과학(Social science) 논문이 70.6%(120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학(Medical science) 논문이 12.9%(22편), 복합학이 10.6%(18편), 인문학이 2.4%(4편) 그 외 학문영역의 논문이 3.5%(6편)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과학 중에서도 세부 영역 중에서도 사회복지학 논문이 38.8%(66편)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수교육학에서도 14편의 논문이 발간되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2. 장애인 돌봄 연구 키워드 빈도분석 및 의미연결망 분석

1) 장애인 돌봄 연구 키워드 빈도분석

장애인 돌봄 연구의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해, 키워드의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장애인 돌봄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의 사용 빈도와 퍼센트는 다음의 <Table 3>와 같다. ‘자녀’, ‘서비스’, ‘발달장애’, ‘사회’, ‘어머니’, ‘부모’, ‘경험’, ‘가족’, ‘지원’, ‘부담’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며, <Figure 4>의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돌봄을 받는 장애인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관련된 키워드에 빈도가 집중된 한편, 14위 ‘지역사회’, 22위 ‘활동지원’ 그리고 36위 ‘커뮤니티케어’의 등장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단어는 가족 돌봄과 대비되는 사회적 돌봄을 표상하는 어휘이다.



<Figure 4> Word Cloud related to ca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able 3> Keyword frequency related to ca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Rank	Keyword	Freq.	%	Rank	Keyword	Freq.	%
1	자녀	298	2.91	26	정책	72	0.70
2	서비스	287	2.80	27	실천	71	0.69
3	발달장애	243	2.37	28	주거	67	0.65
4	사회	208	2.03	29	인식	65	0.63
5	어머니	198	1.93	30	지지	63	0.61
6	부모	197	1.92	31	참여	60	0.59
7	경험	185	1.80	32	육구	58	0.57
8	가족	181	1.76	33	만족감	58	0.57
9	지원	172	1.68	34	시설	56	0.55
10	부담	169	1.65	35	활동	55	0.54
11	성인	156	1.52	36	커뮤니티케어	54	0.53
12	삶	146	1.42	37	지적장애	53	0.52
13	관계	124	1.21	38	의료	53	0.52
14	지역사회	114	1.11	39	노인	50	0.49
15	복지	104	1.01	40	서비스지원	47	0.46
16	제공	102	0.99	41	지역	45	0.44
17	스트레스	87	0.85	42	공정	45	0.44
18	질	85	0.83	43	체계	43	0.42
19	아동	84	0.82	44	심리	42	0.41
20	노동	78	0.76	45	생애주기	42	0.41
21	과정	78	0.76	46	고령	42	0.41
22	활동지원	76	0.74	47	프로그램	40	0.39
23	제도	76	0.74	48	교육	40	0.39
24	여성	75	0.73	49	환경	39	0.38
25	정신장애	73	0.71	50	행동	39	0.38

<Table 4>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를 네 개 시기로 나누어 1위부터 15위까지 높은 빈도로 등장한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Table 4>에서 ‘지역사회’ 라는 용어가 2010년대 후반부터 15위 이내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족 돌봄을 표상하는 ‘어머니’ 라는 키워드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대 후반 15위, 2020년 이후 13위를 차지하여 장애인 돌봄 연구에 있어 그 사용 빈도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able 4>의 키워드 빈도 순위의 변화를 통해 돌봄 대상이 되는 장애 유형이

<Table 4> Change in rank of keyword frequency related to ca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Late 2000s (2005-2009)				Early 2010s (2010-2014)			
Rank	Keyword	Freq.	%	Rank	Keyword	Freq.	%
1	어머니	33	10.96	1	어머니	76	4.06
2	자녀	26	8.64	2	서비스	62	3.31
3	사회	19	6.31	3	자녀	58	3.10
4	지치	15	4.98	4	가족	54	2.88
5	정신장애	9	2.99	5	사회	43	2.30
	생애주기			6	관계	41	2.19
7	효능감	7	2.33	7	스트레스	35	1.87
	만족감			8	경험	34	1.82
	뇌성마비			9	부모	33	1.76
10	아동	6	1.99	10	부담	32	1.71
	성인			11	질	27	1.44
	경험			12	정신장애	26	1.39
13	지적장애, 우울, 관계, 건강, 가족	5	1.66	13	노동	25	1.33
				14	삶	24	1.28
				15	복지	22	1.17
Late 2010s (2015-2019)				From 2020 to Present (2022.3)			
Rank	Keyword	Freq.	%	Rank	Keyword	Freq.	%
1	서비스	148	3.20	1	발달장애	110	3.19
2	발달장애	116	2.51	2	자녀	102	2.96
3	자녀	112	2.42	3	부모	94	2.72
4	사회	96	2.07	4	서비스	75	2.17
5	지원	93	2.01	5	부담	64	1.85
6	경험	84	1.81	6	지원	63	1.83
7	가족	83	1.79	7	성인	62	1.80
8	삶	74	1.60	8	경험	61	1.77
9	부담	73	1.58	9	사회	50	1.45
10	부모	70	1.51	10	삶	47	1.36
11	성인	68	1.47	11	지역사회	46	1.33
12	지역사회	60	1.30	12	제공	42	1.22
13	활동지원	54	1.17	13	어머니	40	1.16
	제도			14	가족	39	1.13
15	어머니	49	1.06	15	복지	37	1.07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정신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주된 쟁점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는 발달장애인이 1위와 2위로 등장하여, 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는 모든 시기에 있어 주요한 돌봄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시기에 걸쳐 ‘자녀’, ‘어머니’, ‘부모’, ‘가족’, ‘부담’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2) 장애인 돌봄 연구의 키워드 중심성(centrality)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통해, 장애인 돌봄 연구 텍스트에서 의미구조상 중심적 역할을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한 문장 내에서 세 어절 이내에 동시에 등장하는 키워드끼리 연결(link)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심성 분석지표는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사용했다. 매개중심성은 활동중심성이라고도 한다.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키워드(nodes) 사이를 연결해 줌으로써 두 키워드 활동 즉 다른 키워드와의 동시 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Freeman, 1979).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으면, 매개중심성이 낮은 키워드라면, 한정된 주제의 키워드와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다양한 주제의 키워드와는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두 중심성 지표의 의미가 달라 본 연구에서는 두 지표 모두 살펴보았다.

170개 장애인 돌봄 논문에서 사용된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약간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자녀’, ‘가족’, ‘부모’, ‘어머니’와 같은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서비스’, ‘사회’, ‘발달장애’와 같은 단어도 10위권 내의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거’, ‘스트레스’, ‘부담’ 등의 키워드가 이어서 높은 중심성을 보이며, ‘활동지원’, ‘의료’, ‘치료’, ‘재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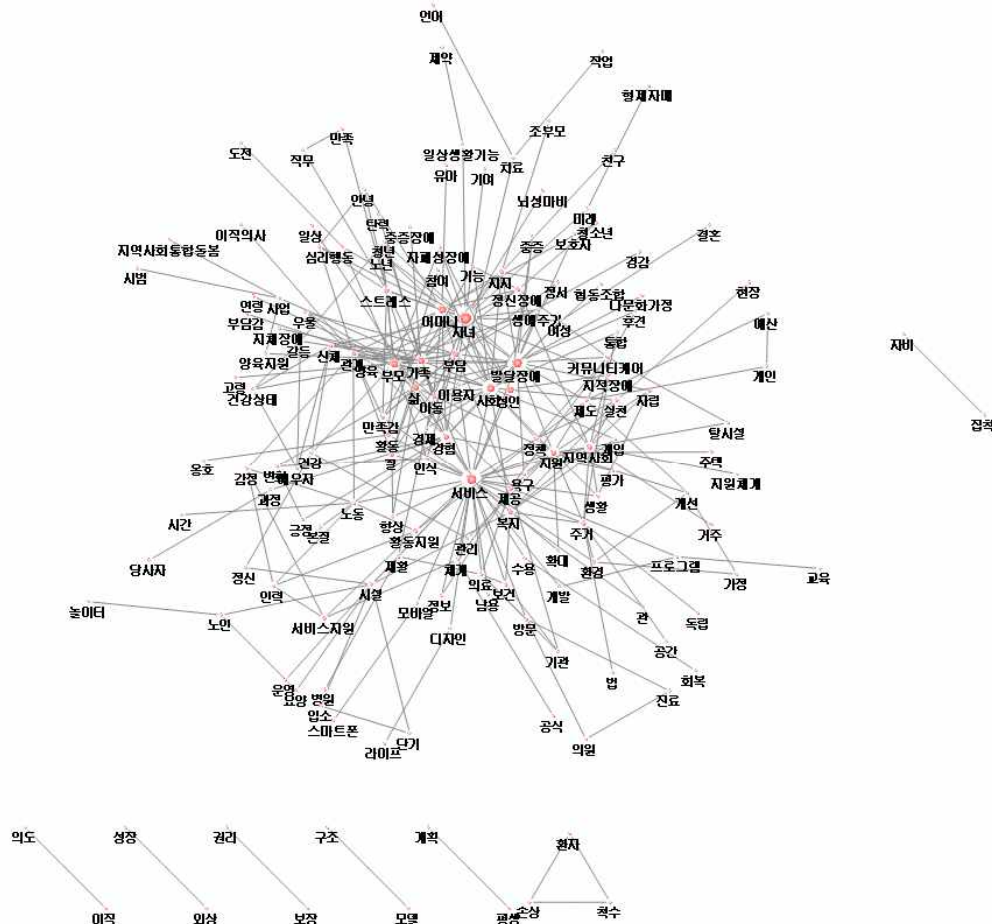
한편, ‘어머니’, ‘경험’, ‘삶’ 등의 키워드들은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 ‘삶’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각각 4위와 9위로 높지만 매개중심성은 각각 10위와 18위로 그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두 키워드의 경우 한정된 주제의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며 제한된 키워드들과 자주 연결되지만,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으며 이질적인 키워드를 잘 연결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경험’은 연결정도 중심성은 11위로 비교적 낮지만, 매개중심성은 4위로 높게 나타났다. 이 키워드는 한정된 주제에서의 연결보다는 다양한 주제의 키워드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5> Rank of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of keyword

Rank	Keyword	Degree Centrality	Rank	Keyword	Betweenness Centrality
1	자녀	2.656	1	서비스	0.336
2	서비스	2.153	2	가족	0.120
3	발달장애	2.055	3	자녀	0.119
4	부모	1.601	4	경험	0.109
	어머니	1.601	5	사회	0.109
6	사회	1.509	6	발달장애	0.108
7	성인	1.276	7	부모	0.092
8	가족	1.245	8	시설	0.072
9	삶	1.006	9	지원	0.054
10	지원	0.914	10	어머니	0.048
11	경험	0.890	11	지역사회	0.044
12	부담	0.834	12	관계	0.041
13	지역사회	0.663	13	주거	0.037
14	복지	0.620	14	이용자	0.034
15	스트레스	0.583	15	제공	0.031
16	질	0.571	16	스트레스	0.030
17	관계	0.540	17	부담	0.029
18	제공	0.515	18	삶	0.028
19	주거	0.454	19	복지	0.027
20	아동	0.442	20	제도	0.026
21	지지	0.417	21	지지	0.024
22	의료	0.405	22	사업	0.022
23	정신장애	0.350	22	치료	0.022
23	활동지원	0.350	24	방문	0.022
25	시설	0.344	25	노동	0.021
25	제도	0.344	26	체계	0.017
27	만족감	0.294	27	활동	0.015
28	실천	0.294	28	재활	0.015
28	심리	0.288	29	성인	0.013
30	노동, 정책	0.270	30	활동지원	0.012

각 키워드(node)의 연결(link)과 중심성 지표를 <Figure 5>와 같이 네트워크 그림을 통해서도 표현하였다. 선은 각 키워드 간의 연결, 즉 세 어절 이내에 동시 등장한 키워드인가를 의미하며, 둥근 점의 크기는 중심성 지표의 크기를 의미한다. 연결정도 중심성 네트워크 그림과 매개중심성 네트워크 그림이 거의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결정도 중심성의 네트워크 그림만을 <Figure 5>에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그림은 세 어절 이내에 동시에 출현한 키워드들끼리의 연결이 5회 이상 반복된 키워드에 한정하여 작성되었다. 가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자녀’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 키워드들이 방사형으로 펼쳐지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네트워크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족 돌봄과 관련된 단어

들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등의 사회적 돌봄과 관련된 키워드와 ‘자폐성 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유형과 관련된 키워드가 중간에 있으며, ‘자립’, ‘탈시설’ 등의 단어는 주변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



<Figure 5> Degree centrality expressed in network

이어서 키워드 빈도분석과 더불어 중심성 분석 역시 발간 시기를 4개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시기별 키워드별 중심성 지표의 순위 변화를 통해 장애인 돌봄 연구에 있어 핵심 키워드 즉 중심 주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6>의 논문의 발간 시기별 연결정도 중심성을 살펴보면, 몇 가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첫째, 2010년대 초반까지 높았던 ‘어머니’의 중심성 순위는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하락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높은 중심성은 장애인 돌봄의 가족화와 여성화

가 표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주제에서 가족화는 유지되지만 가족 내 여성화는 약화 된 결과로 해석된다.

<Table 6> Rank of degree centrality of keyword by period of publication

Rank	Late 2000s (2005~2009)		Early 2010s (2010~2014)		Late 2010s (2015~2019)		From 2020 to Present (2022.3)	
	Keyword	Centrality	Keyword	Centrality	Keyword	Centrality	Keyword	Centrality
1	어머니	0.621	어머니	0.391	서비스	0.423	자녀	0.342
2	자녀	0.524	자녀	0.298	사회	0.299	발달장애	0.329
3	사회	0.485	서비스	0.285	자녀	0.288	부모	0.305
4	지지	0.350	가족	0.264	발달장애	0.283	서비스	0.242
5	정신장애	0.184	사회	0.220	지원	0.242	성인	0.200
6	관계	0.117	관계	0.207	가족	0.234	지원	0.200
7	뇌성마비	0.117	경험	0.179	경험	0.180	경험	0.163
8	가족	0.107	부모	0.166	삶	0.177	사회	0.163
9	건강	0.107	스트레스	0.163	지역사회	0.176	삶	0.160
10	생애주기	0.107	삶	0.150	부모	0.173	지역사회	0.149
11	성인	0.107	질	0.135	성인	0.166	제공	0.129
12	걱정	0.087	노동	0.130	부담	0.148	가족	0.126
13	발달장애	0.087	부담	0.124	의료	0.139	부담	0.125
14	아동	0.087	복지	0.122	제도	0.134	복지	0.123
15	우울	0.087	정신장애	0.106	관계	0.129	활동	0.122

둘째, 2000년대 초반까지 ‘서비스’ 키워드의 중심성 순위가 낮았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 ‘서비스’ 키워드가 높은 순위의 중심성을 보인다. 이는 2000년대에 이미 존재했던 장애인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사회서비스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2010년대 초반까지 낮았던 ‘발달장애’의 중심성 순위가 201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2010년대 후반부터 큰 쟁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변화되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발달장애인법과 같은 제도화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대 후반이었다.

넷째, 2010년 초반까지 15위 밖이었던 ‘지역사회’ 키워드가 2010년대 후반부터 높은 중심성 순위를 보인다. 2010년대 초반까지 가족 돌봄에 대한 문제 제기 외와

관련된 키워드가 높은 중심성 순위를 차지했지만, 2010년 후반부터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지역사회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Table 7> Rank of betweenness centrality of keyword by period of publication

Rank	Late 2000s (2005~2009)		Early 2010s (2010~2014)		Late 2010s (2015~2019)		From 2020 to Present (2022.3)	
	Keyword	Centrality	Keyword	Centrality	Keyword	Centrality	Keyword	Centrality
1	자녀	0.447	서비스	0.152	사회	0.152	지원	0.103
2	어머니	0.284	사회	0.144	서비스	0.151	서비스	0.094
3	사회	0.218	어머니	0.128	지원	0.064	발달장애	0.084
4	경험	0.092	자녀	0.121	경험	0.057	경험	0.066
5	종교	0.071	관계	0.096	가족	0.053	사회	0.064
6	걱정	0.070	가족	0.091	관계	0.050	부모	0.063
7	의지	0.054	경험	0.064	발달장애	0.042	가족	0.059
8	정신장애	0.053	삶	0.052	자녀	0.040	삶	0.051
9	우울	0.052	부모	0.049	복지	0.039	자녀	0.048
10	지지	0.042	부담	0.042	제공	0.037	노인	0.045
11	기능	0.041	노동	0.039	삶	0.034	시설	0.044
12	당황	0.040	시설	0.036	과정	0.034	복지	0.044
13	거주	0.040	모성	0.035	여성	0.034	지역사회	0.042
14	자책감	0.027	제도	0.035	노동	0.032	제공	0.042
15	정신	0.027	지원	0.031	지역사회	0.032	관계	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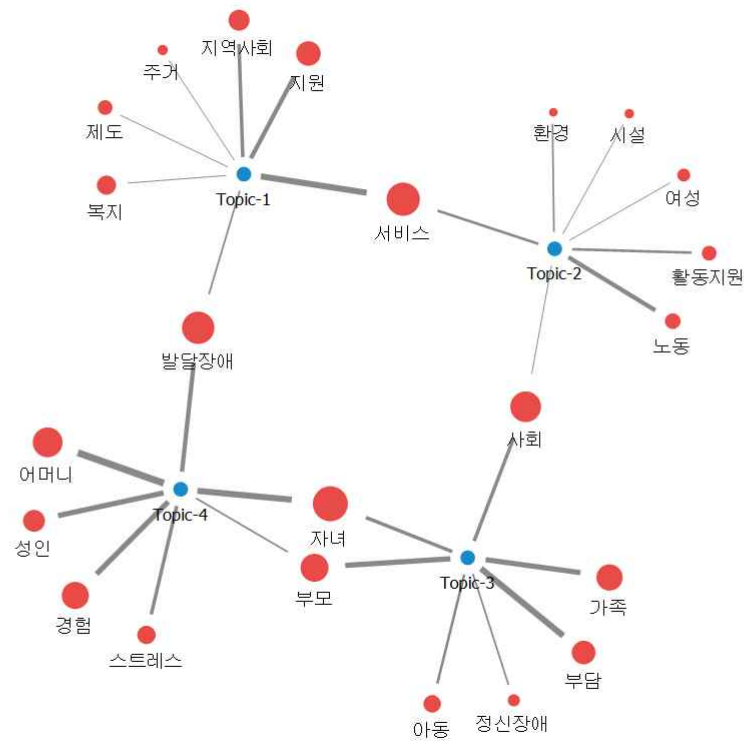
연결정도 중심성에 이어서 매개중심성도 발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Table 7> 참조), 발간 시기별 매개중심성 순위 변화는 발간 시기별 연결중심성의 순위 변화와 매우 비슷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매개중심성은 하락했으며, ‘서비스’, ‘발달장애’, ‘지역사회’의 중심성은 상승하였다.

한편, 매개중심성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 돌봄에 관한 연구 관심과 영역이 확장 및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후반에 들어, ‘여성’과 ‘노동’이 15위권 내의 높은 중심성을 보인다. 이 시기 비로소 장애인 돌봄이 ‘노동’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으며, 돌봄이 사회화되었지만 여전히 돌봄의 여성화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대에 들어 ‘노인’이 10위에 진입한 것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는 고령 장애인 즉, 장애인의 노화가 연구 관심 영역에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장애인 돌봄 연구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텍스트 자료에서 반복되는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의 동시 등장 확률을 계산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텍스트 분석기법이다(김영우, 2021: 190-193). 토픽모델링을 통해 170개 연구논문의 주제를 몇 가지로 단순화 및 명료화할 수 있으며, 주제별로 논문을 분류하고 추이를 봄으로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Figure 6> 2-mode network between topic and keyword related to ca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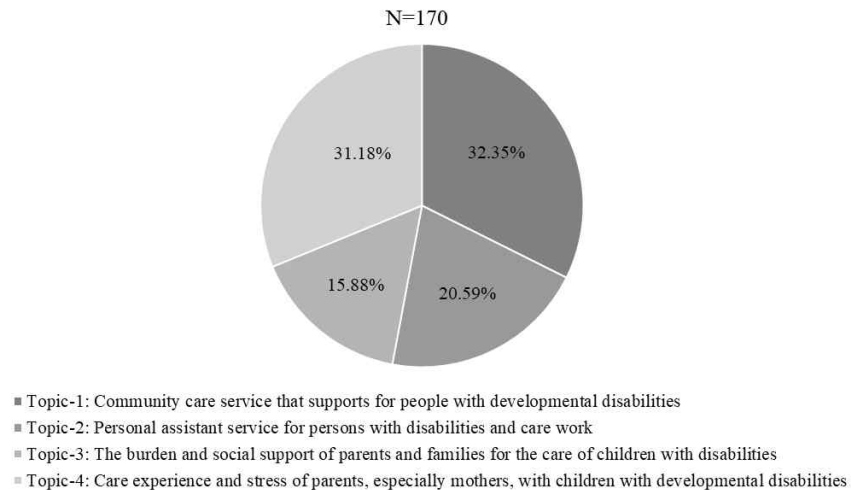
주: Silhouette Coefficient=0.886

LDA에서는 연구자가 토픽 수를 결정하는 데 명확하게 이상적인 토픽 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김영우, 2021: 223). LDA의 분석결과를 K-means로 클러스터링했을 때,

실루엣 계수(Silhouette Coefficient)가 산출된다. 이때 실루엣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토픽의 수를 4로 설정했을 때, 실루엣 계수는 0.886으로 여러 개의 토픽 개수 설정 중 가장 높게 나와, 토픽 수를 4개로 지정하였다.

<Figure 6>는 추출된 토픽에서 사용된 키워드 중 상위 7개의 키워드와 토픽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원의 크기는 토픽에 있어 키워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토픽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서비스’, ‘발달장애’, ‘사회’, ‘자녀’ 및 ‘부모’이다. 토픽1과 토픽2는 ‘서비스’ 키워드를 공유하고, 토픽1과 토픽4는 ‘발달장애’ 키워드를 공유한다. 토픽2와 토픽3은 ‘사회’ 키워드를 공유하고, 토픽4와 토픽5는 ‘자녀’와 ‘부모’ 키워드를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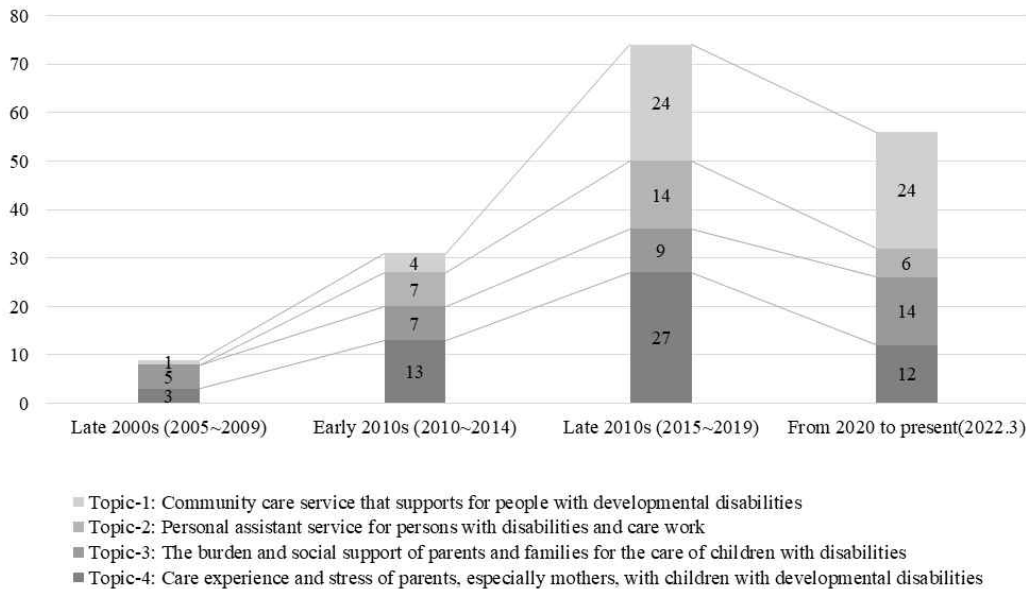
추출된 상위 키워드를 조합하여, 주제를 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픽1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지원’, 토픽2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돌봄 노동’, 토픽3은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가족의 부담과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토픽4는 ‘발달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어머니의 돌봄 경험과 스트레스’이다.



<Figure 7> Proportion of articles by topic

토픽별 논문들의 분포는 <Figure 7>과 같다. 토픽1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장 많은 32.35%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서 토픽4 ‘발달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어머니의 돌봄 경험과 스트레스’가 31.18%를 차지하고 있었다. 토픽2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돌봄 노동’이 20.59%로 다음으로 많았고, 토픽3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가족의 부담과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15.88%

로 가장 적은 분포를 차지했다.



<Figure 8> The trend of the number of articles by topic and period of publication

발간 시기에 따른 토픽별 논문 발간 수를 살펴본 결과(<Figure 8> 참조), 토픽을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 돌봄 연구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토픽1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지원’이 2000년대 후반 1편에서 2010년대 후반 24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토픽2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돌봄노동’이 2010년대 초반 등장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가족돌봄과 관련된 토픽3과 토픽4가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픽모델링 결과 및 토픽별 논문 분포의 변화는 지금까지 장애인 돌봄 연구의 동향을 응축적으로 보여준다. 첫째는, 발달장애인 돌봄 연구(토픽1과 토픽4)의 양적 성장이다. 2000년대 후반 4편에 불과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2010년대 초반에는 17편, 2010년대 후반에는 51편으로 많이 증가한다. 둘째,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 움직임이다. 커뮤니티케어(토픽1), 활동지원서비스(토픽2)가 201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연구주제로 등장한다. 셋째, 사회화된 돌봄이 ‘노동’으로 간주되었다(토픽2). 가족 내 여성의 돌봄은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활동지원사의 돌봄은 노동으로서 간주된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화되어 있다(토픽3, 토픽4). 사회적 돌봄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가족 돌봄에 관한 연구 역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토픽모델링 결

과는 앞서 이뤄졌던 키워드 빈도 분석 및 중심성 분석 결과와 결을 같이 한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돌봄 연구논문을 발간 시기별로 네 시기(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후반, 2020년~2022년 3월)로 구분하여, 장애인 돌봄 연구의 시기 및 학문영역별 분포, 키워드 빈도분석 및 의미연결망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돌봄 연구의 빈도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첫째, 장애인 돌봄 관련 국내 학술논문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장애인 돌봄 연구가 급증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9편이었던 장애인 돌봄 연구는 2010년대 초반 31편, 2010년 후반에는 74편, 2020년~2022년 3월까지는 56편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향후 장애인 돌봄 연구는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돌봄 체제의 재정비와 맞물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장애인 돌봄 관련 국내 학술논문은 사회복지 관련 학술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지에서 발표되고 있었다. 상위 5개 학술지의 분포는 ‘한국장애인복지학’이 22편(12.94%), ‘인문사회 21’이 12편(7.06), ‘재활복지’와 ‘한국가족복지학’이 각 7편(4.12%), ‘한국사회복지학’이 6편(3.53%)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여성, 노동, 의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인 돌봄 연구의 학문영역별 분포는 사회과학(Social science)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수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과학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학 논문이 120편 중 66편(전체 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교육학 논문은 14편(전체 8.2%)이었다. 장애인 돌봄에 대한 특수교육학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2. 장애인 돌봄 연구의 의미연결망 결과에 대한 논의

첫째, 장애인 돌봄 연구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2000년대 후반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연구에서 ‘자녀’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시대 구분에 따른 키워드 분석 결과 ‘어머니’라는 키워드는 2010년대 초반까지 1위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사용 빈도가 감소하였으며 ‘부모’라는 키워드로 대체되고 있었다. ‘지역사회’, ‘활동지원’과 같은 키워드는 2010년대 후반부터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어, 장애인 돌봄이 제도화되는 시기와 학술 연구의 증가가 일치하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발달장애인의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나,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전체 연구에 대한 상위 15위의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자녀’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서비스’, ‘발달장애’, ‘사회’, ‘어머니’, ‘부모’, ‘경험’, ‘가족’, ‘지원’, ‘부담’, ‘성인’, ‘삶’, ‘관계’, ‘지역사회’, ‘복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관련된 키워드와 사회적 돌봄을 의미하는 키워드가 혼재되어 있었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네 개 시기로 나누어 1위부터 15위까지 높은 빈도로 등장한 단어를 살펴보면 ‘어머니’라는 키워드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는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었다. ‘부모’라는 키워드는 2000년대 후반 연구에서는 상위 15위권 내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0년대 초반에는 9위, 2010년대 후반에는 10위, 2020년대 초반에는 3위로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관련 연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대부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김미옥, 김지혜, 김고은, 2020; 심석순, 김성천, 2013). 즉 장애인 돌봄에서 어머니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돌봄노동의 여성화를 지적한 안숙영(2018), 조상은, 오옥찬(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커뮤니티케어 키워드 및 사회연결망을 분석한 전유미, 강기정(2019)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었다. 전유미, 강기정(2019)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케어’, ‘커뮤니티’, ‘사회’, ‘노인’, ‘지역’, ‘연구’, ‘복지’, ‘시설’, ‘분석’이 출현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케어 연구에서는 사회적 돌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장애인 돌봄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돌봄에서 가족 돌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빈도 순위의 변화를 통해 돌봄 대상이 되는 장애 유형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발달장애인이 1위, 2위로 등장하였다. 이 결과는 이상아 외(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아 외(2020)는 발달장애 신문기사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발달장애’라는 용

어가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장애인 돌봄 연구에 대한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두 중심성 모두 중심성에서 ‘자녀’, ‘가족’, ‘부모’, ‘어머니’와 같은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었다. 시기별 연결 중심성은 2010년대 초반까지 높았던 ‘어머니’의 연결정도 중심성 순위가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크게 하락하였다. ‘발달장애’와 ‘지역사회’는 2010년대 후반부터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였다. 이런 양상은 매개중심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여전히 가족 돌봄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어머니가 장애인 돌봄을 전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발달장애’와 ‘지역사회’의 중심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돌봄의 제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약간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지만, 두 중심성 모두에서 ‘자녀’, ‘가족’, ‘부모’, ‘어머니’와 같은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었다. ‘서비스’, ‘사회’, ‘지원’과 같은 사회적 돌봄과 관련한 키워드도 두 중심성에서도 모두 10위권 내의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었다.

각 키워드(node)의 연결(link)과 중심성 지표를 네트워크 그림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중심성 네트워크 그림에서 ‘자녀’와 ‘서비스’가 가장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았으며, ‘발달장애’ 역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등의 사회적 돌봄과 관련된 키워드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 ‘자립’, ‘탈시설’, ‘거주’, ‘예산’,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같이 돌봄의 공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키워드는 주변적 위치에 있었다.

시기별 연결 중심성은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높았던 ‘어머니’의 연결정도 중심성 순위는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5위 밖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서비스’라는 키워드는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 높은 순위의 중심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2010년대부터 서비스로 실현되게 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 낮았던 ‘발달장애’의 중심성 순위가 2010년대 후반부터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0년~2022년 3월까지의 그 중심성이 더 상승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김기룡, 강경숙, 이명희, 2016; 최복천, 2016).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민아 외, 2020; 김은정, 박재연, 2022). 2010년 초반까지 15위 밖이었던 ‘지역사회’ 키워드는 2010년대 후반부터 높은 중심성 순위를 보여, 장애인 돌봄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간 시기별 매개중심성 순위 변화 역시 발간 시기별 연결중심성의 순위 변화와 매우 유사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매개중심성은 하락했으며, ‘서비스’, ‘지역사회’, ‘발달장애’의 중심성은 상승하였다. 2010년 후반 들어 ‘여성’과 ‘노동’이 15위권 내의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이는 점은 특징적이다. 이는 돌봄의 여성화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함께 장애인 돌봄이 ‘노동’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송다영, 2014; 안숙영, 2018). 이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장애인활동 지원이 제도화되는 시기와의 일치한다.

3. 장애인 돌봄 연구의 토픽모델링 결과에 대한 논의

장애인 돌봄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제들을 분석한 결과 토픽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서비스’, ‘발달장애’, ‘사회’, ‘자녀’, ‘부모’로 나타났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4개의 토픽을 살펴본 결과 토픽1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지원’, 토픽2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돌봄 노동’, 토픽3은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지원’, 토픽4는 ‘발달장애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와 어머니의 돌봄 경험과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토픽1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지원’은 3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토픽1은 201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토픽 1은 발달장애,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복지, 제도, 주거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케어(communitary care)’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커뮤니티케어는 2010년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탈시설화 특히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주거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내포하고 있다(김용득, 2018). 이러한 특성이 장애인 돌봄 주제에 반영되어 있다.

토픽2 ‘활동지원 서비스와 돌봄 노동’은 20.59%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노동, 활동지원, 여성, 시설,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 돌봄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제도를 통해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지영, 2019). 한편 토픽2를 통해 돌봄 노동의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업무조건 등으로 인해 여성이 주로 돌봄 노동을 담당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송다영, 2014; 안숙영, 2018; 임소연, 이진숙, 2016).

토픽3과 토픽4는 주제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토픽3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지원’은 15.88%로 나타났으며, 자녀, 부모, 사회, 가족, 부담, 아동, 정신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토픽4는 ‘발달장애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와 어머니의 돌봄 경험과 스트레스’는 31.18%를 차지하며, 자녀, 부모, 발달장애, 어머니, 경험, 성인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토픽3과 토픽4는 자녀,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돌봄에서 자녀와 부모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중 가족 구성원이 7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특히 어머니를 비롯한 부모, 가족의 장애인 돌봄 부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발달장애 성인의 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대 흐름에 따른 토픽별 논문의 변화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연구가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와 함께 장애인 돌봄이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 토픽3과 토픽4의 주제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는 돌봄의 가족화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픽 모델링의 결과는 키워드 빈도분석,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돌봄 연구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주제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인 학술 담론의 영향으로 장애인 돌봄 연구에서 ‘어머니’를 키워드로 하는 연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 부모, 가족, 부담이라는 키워드들로 대변되는 ‘돌봄의 재가족화’가 동시에 전개되어 있었다. 특히 ‘돌봄의 사회화’를 실천하기 위한 탈시설, 주거 등의 구체적인 키워드와 주제는 주변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전히 가족이 장애인 돌봄의 주체로 상정되어 있으며 사회가 이를 부분적으로 보조하는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가 구체적인 제도와 실천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며 발달장애인 가족 557명이 삭발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하민

지, 2022.04.19.).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지금까지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구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재가족화를 의미하는 키워드와 토픽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놓여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돌봄,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에서 왜 가족 돌봄은 오랫동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돌봄’ 과 ‘케어’ 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호’, ‘양육’, ‘활동지원’ 등 다양한 키워드를 내포한 연구까지는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과 같이 돌봄의 다른 주요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 돌봄 연구의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hn, S. Y. (2018). A Critical Approach to the Feminization of Care Work. *Journal of Korean Women 's Studies*, 34(2), 1-32.
 [안숙영 (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2), 1-32.]
- Blei, D. M., Ng, A. Y., and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 Chae, Y. R. (2021).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multicultural education using text mining analysi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41(6). 333-350.
 [채영란 (2021).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41(6). 333-350.]
- Cho, S. E., and Oh, U. C. (2021). Impacts of Care Burde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 Family' s Labor Force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52(4), 165-189.
 [조상은, 오욱찬. (2021).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가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52(4), 165-189.]
- Cho, Y. S., & Yang, S. N. (2018). A Study about Experiences of Male Siblings without Disability Who Care for Their Adult Sibling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62, 5-38.
 [조영실, 양소남 (2018). 성인 지적장애인을 부양하는 비장애남자 형제의 돌봄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2, 5-38].
- Choi, B. C. (2016). Current Issues in Social Care Services for Disabled Children. *Health and*

- welfare policy forum, 8, 72-83.
 [최복천 (2016).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38, 72-83.]
- Choi, B. C., Baek, E. R., and Lim, S. K.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ase Management Manual for Famili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Disabled.
 [최복천, 백은령, 임수경(2013). **발달장애인 가족사례 관리 매뉴얼 개발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Freeman, L. C. (1978).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 Hong, S. M., Ha, K. H., & Jeon, J. H. (2022). A case study on life change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rough community car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55, 169-197.
 [홍선미, 전주희, 하경희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5, 169-197.]
- Hong, S. Y., & Choi, J. W. (2017). Research trends of student support in higher education using topic model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8), 21-48.
 [홍성연, 최재원 (2017). 토픽 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한 대학의 학생 지원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8), 21-48.]
- Jeon, H. Y. (2019). Analysis of Employment Trends of Disabilities through Big Data: Focusing on SNS and Online News. *Disability & Employment*, 29(2), 55-82.
 [전혜영 (2019).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고용 동향분석: SNS와 온라인 뉴스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2), 55-82.]
- Jun, Y. M. & Kang, K. J. (2019). Community care Key word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Big Data.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24(2), 251-269.
 [전윤미, 강기정 (2019). 빅데이터 기반의 커뮤니티케어 키워드 및 사회연결망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4(2), 251-269.]
- Kang, H. M. (2022.03.08.). Make the parents who murdered thei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y for their crimes and hold the government accountable. Retrieved on, April, 1, 2022, from *beminor*: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6>.
 [강혜민, (2022.03.08.). 발달장애자녀 죽인 부모에게 죄값 묻고 국가에도 반드시 책임 물어라.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6> 에서 2022.04.01. 인출]
- Kim, J. Y. (2019). A Critical Study on the Care Work of the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0(3), 307-320.
 [김지영 (2019).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문사회** 21, 10(3), 307-320.]

- Kim, K. Y. (2009). An exploratory study of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perceived caregiving control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other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3), 81-107.
[김교연 (2009). 지적 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돌봄 통제감 및 우울: 장애인 생애주기의 영향에 관한 탐색.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0**(3), 81-107.]
- Kim, K. Y., Kang, K. S., & Lee, M. H. (2016). Current Status of Use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Support Services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15*(4), 205-229.
[김기룡, 강경숙, 이명희 (2016).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특수교육, 15**(4), 205-229.]
- Kim, M. A., Hwnag, S. Y., Jung, S. M., & Sung, J. M. (2020). Service Needs of Parents Caring for an Adult Child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67*(4), 129-165.
[김민아, 황신영, 정상미, 성지민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상황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서비스 욕구. **한국가족복지학, 67**(4), 129-165.]
- Kim, M. O., & Kim, J. H., & KIM, G. E., (2020). Parents' Experience Caring for People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Challenging Behavior: Focusing on the participants of the Severe Daytime Activity Pilot Project in Seoul.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49*, 119-146.
[김미옥, 김지혜, 김고은 (2020).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의 돌봄경험: 서울시 최중증 낮활동 시범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9**, 119-146.]
- Kim, S. Y. (2019). Community Care Promotion and Policy Tasks. In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Eds.). *The Disabled White Book*(pp.18-37). [김승연 (2019). 커뮤니티케어 추진 및 정책과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 **장애인백서, 18-37.**]
- Kim, Y. D. (2018) Deinstitutionalization and Building Community-Based Personal Social Services: Community Care that Connects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3), 492-520.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8**(3), 492-520.]
- Kim, Y. H., & Kim, N. S. (2013). An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After-school Programs for Subjects of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8*(2), 273-300.
[김양화, 김남순 (201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주요 언론기사 분석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273-300.]
- Kim, Y. J., & Park, J. Y. (2022).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ing Experience of Primary Caregiver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the Age of

- COVID-19.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3(1), 1-32.
 [김은정, 박재연 (2022).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주 양육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23(1), 1-32.]
- Kim, Y. W. (2021). *Do it! R Text Mining*. Seoul: EasysPublishing Co., Ltd. [김영우 (2021). **Do it!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 서울: 이지스퍼블리싱(주).]
- Kwon, D. S. (2012). *Big Data Revolution: The Future of Cloud and Supercomputing*. Seoul: *Isibilsegibukeu*.
 [권대석 (2012). **빅데이터 혁명: 클라우드와 슈퍼컴퓨팅이 이끄는 미래**. 서울: 북이십일 21세기북스.]
- Lee, B. S. (2015). The Study on care burden and service needs of family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ed on mother and practitioner.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8, 5-27.
 [이복실 (2015).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과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8, 5-27.]
- Lee, J. E. & Kim, K. M. (2021) Perceptions of Adult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wards Future Caregiving Readiness. *Special Education Research*, 20(3), 151-174.
 [이정은, & 김경미. (2021).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성인기 비장애 형제자매의 미래 돌봄 준비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 20(3), 151-174.]
- Lee, M. H. (2015). A Discussion of Needs and Difficulties Felt by Families and Children with Severe Brain Lesions: focusing on mothers and specialist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5(2), 257-281.
 [이명희 (2015). 중도(重度)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의 어려움과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5(2), 257-281.]
- Lee, M. K., HONG, J. S., HONG, S. W., & MOON, D. O. (2021). Review of Research Trends regarding Vocabulary Intervention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2(3), 199-234.
 [이미경, 홍정숙, 홍성욱, 문동오 (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어휘 중재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2(3), 199-234.]
- Lee, S. A., Choi, B. S. & Choi, J. H (2020). Analysi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ws paver articles using Text mining: focused on early screening and early intervention.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2(1), 1-27.
 [이상아, 최범성, & 최진혁. (2020).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발달장애 신문기사 분석: 조기선별과 조기중재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22(1), 1-27.]
- Lee, S. S. (2012).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Seoul: Nonhyong.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Lim, S. Y., & Lee, J. S. (2016). A Study on Women's Care-work in the Personal Assistant Service by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7(2), 533-559.

- [임소연, 이진숙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여성의 돌봄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7(2), 533-559.]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Sejong: KIHASA.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A guidebook for community c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천 가이드북**. 세종: 보건복지부.]
- Oh, S. M. (2013).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Process of a Mother's Experiences in Raising a Child with Autistic Tendenci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 375-402.
- [오승민 (2013). 취학 전 자폐적 성향을 보이는 발달지체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20(2), 375-402.]
- Park, J. B. (2018). A Case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Edu-Care in Special Schools. *Journal of Special & Gifted Education, 5*(2), 1-17.
- [박재범 (2018).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서울시 특수학교 중심으로. **특수·영재교육저널**, 5(2), 1-17.]
- Pyo, Y. H., & Hong, J. S. (2018). Mothers' Rearing Experiences and their Needs for Children with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3*(3), 257-285.
- [표윤희, 홍정숙 (2018). 지체 중복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 및 지원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53(3), 257-285.]
- Ryu, Y. K. (2012). Care Deficit and Dualism of Socialization of Care.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37*, 113-154.
-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37, 113-154.]
- Seok, J. E. (2018). The Conceptualization of Caring Justice and an Evaluation of Long-Term Care Policy in Korea. *Korea Social Policy Review, 25*(2), 57-91.
- [석재은 (2018).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2), 57-91.]
- Shim, S. S. (201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 care stress of mothers of adul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8*, 1-23.
- [심석순 (2013). 성인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1-23.]
- Shim, S. S., & Kim, S. C. (201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 care stress of parents of adult with Autism disabiliti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7*, 307-327.
- [심석순, 김성천 (2013). 성인자폐성장애인 부모의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 307-327.]

- Song, D. Y. (2014). Socialization of Caring and Delay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Journal of Korean Women 's Studies*, 30(4), 119-152.
[송다영 (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한국여성학*, 30(4), 119-152.]
- Steyvers, M., & Griffiths, T. (2007). Probabilistic topic models. *Handbook of Latent Semantic Analysis*, 427(7), 424-440.
- You, Y. J., Lee, M. H., Paik, E. R., and Choi, B. C. (2011). A Study on Family Burden and Needs for Family Support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0(1), 209-234.
[유영준, 이명희, 백은령, 최복천(2011).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의 양육 부담 및 가족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10(1), 209-234.]
- Ha, M. J. (2022.04.19.). "I hope you live equally without me." 557 people shaved their heads demanding 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trieved on, April, 20, 2022, from beminor: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4>.
[하민지 (2022.04.19.) "내가 없어도 네가 평등히 살길"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요구하며 557명 삭발.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4> 에서 2022.04.20. 인출.]

<국문 초록>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연구의 동향

김 정 석 · 광 정 란 · 김 미 선 · 박 세 경

[목적] 이 연구는 장애인 돌봄에 관한 사회적·정책적 인식과 접근의 변화가 학술 담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분석대상은 ‘장애인 돌봄’ 이란 용어가 등장한 2005년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장애인 돌봄 관련 논문 170편이다. 장애인 돌봄 논문의 발간 시기 및 학문영역별 분포를 확인한 후, 논문의 한글 제목과 한글 초록을 자료로 키워드 빈도분석, 의미연결망분석 및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논문을 발간 시기별로 네 시기(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로 구분하였다. **[결과]** 첫째, 장애인 돌봄 연구 논문은 최근으로 갈수록 증가했으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생산되었다. 둘째, 키워드 빈도분석 및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자녀’, ‘어머니’, ‘부모’, ‘가족’ 등 가족 돌봄 관련 키워드가 모든 시기에 걸쳐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전체 중심성 분석에서도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자립’, ‘탈시설’, ‘지역사회통합돌봄’ 과 같은 사회적 돌봄 관련 단어는 주변적 위치에 있다. 한편, 시기별 분석에서 가족 돌봄 관련 키워드의 빈도는 유지되었지만, 중심성은 다소 떨어졌다. 반면, 사회적 돌봄을 나타내는 ‘지역사회’ 빈도와 중심성이 점차 상위권을 차지했다. 셋째, 토픽 모델링 결과 4개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토픽1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지원’, 토픽2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돌봄 노동’, 토픽3은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가족의 부담과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토픽4는 ‘발달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어머니의 돌봄 경험과 스트레스’ 이다. 사회적 돌봄과 관련된 토픽1, 2를 주제로 한 논문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가족돌봄과 관련된 토픽3과 토픽4를 주제로 한 논문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론]** 장애인 돌봄에서 가족은 여전히 돌봄의 주체로 상정되고 있으며 사회는 이를 부분적으로 보조하는 패러다임이 유지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적 담론 형성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 장애인, 돌봄, 돌봄의 사회화, 가족 돌봄, 텍스트마이닝

논문 접수(Received): 2022. 05. 11. / 심사 시작(Examined): 2022. 05. 11. / 게재 확정(Accepted): 2022. 06. 15.